

韓民族の活躍で人類が救われます

한민족의 활약으로 인류가 구원받습니다

BC1000年頃, 古朝鮮が設立された 기원전 1000년경에 고조선이 설립되었다

三國有史に壇君がBC2333年に古朝鮮を設立されたと記録されている。しかし、私は青銅器文明期、BC1000年頃、古朝鮮が設立されたと申し上げるのです。鐵器文明期、中國の漢が古朝鮮を侵略して、漢四郡を設置して、わが民族は植民地生活をしました。そして高句麗に樂浪軍が滅ぼされる時まで400余年間も中國の植民地生活をしたのです。삼국유사에는 단군왕검께서 BC 2333년에 고조선을 설립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 람은 청동기 문명시대인 BC 1000년 경에 고조선이 설립되었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철기문명기, 중국의 한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하고 한시군을 설치함으로써 우리민족은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고구려에게 낙랑군이 멸망 당할 때까지 400여년 간이나 중국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我われの歴史歪曲はその植民地生活の時成り立ったのです。壇君神話を操作し、まるでわが民族が熊の子孫であるように輕んじたのが中國人だった。そのように歪曲された歴史が日本人に再び歪曲され、我われの根本を永久に探ることが出来なくなりましたのです。우리의 역사 왜곡은 그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군신화를 조작하여 마치 이 민족이 곰의 자손인 것처럼 천대만 것이 바로 중국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왜곡된 역사가 일본인들에 의해 또다시 왜곡되어 우리의 뿌리는 영영 찾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三韓の時代の人達が日本に渡って日本の原住民になり、その後、百濟が滅びながら多くの人びとが日本に行って日本を形成した。だから、日本人は我われと同じ民族です。삼한시대의 사람들이 섬으로 건너가 일본 원주민이 되고 그 후 가야, 백제가 멸망하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오늘의 일본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인은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BC1000年頃、平壤に都を定めて古朝鮮を立てたのが、ヤコブの五番目の息子ダンの後孫である壇君です。これは大同江流域で出土された瓦に古代ヘブライ語が書かれていることを見て分かる。ヘブライ語が書かれた瓦は光州の國立博物館、ソウルの國立中央博物館に置かれているだけでなく、日本人井内功氏も所藏していたのです。彼は1988年に韓國で所藏品を展示したことがあ る。BC 1000년 경에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고조선을 세운 것이 야곱의 다섯째 아들, 단의 후손인 단군이었습니다. 이는 대동강

유역에서 출토된 기왓장에 고대 히브리어가 적혀 있는 것을 보 아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쓰여진 기왓장은 광주 국립박 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 비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 이 우찌이사오씨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988년에 한국에서 소장품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瓦に書かれたヘブライ語の内容は「到着した」「團結して神の國に入れ」「箴言を教える師士が統治する」「聖徒が祈ることで神の國が回復される」などがある。この内容からわが民族は聖書の中のヤコブの直系子孫であるダン支派の子孫であることが確かです。기왓장에 쓰여진 히브리어의 내용은 '도착했다' '단결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라' '잠언을 가르치는 사사가 통치한다' '성도가 기도함으로 신의 나라가 회복된다' 등이었는데 이 내용으로 볼 때 우리 민족은 성경 속의 야곱의 직계 후손 단지파의 자손임이 분명합니다.

アブラハムには長男であるイシマエルが居たが、彼は百歳の時に本妻サラによって得た「イサク」に長子相續をした。長子相續は本妻の長子だけに出来たので二番目の妻の息子であったイシマエルには相續が出来なかったのです。ヤコブの妾であるレアの4番目の息子ユダの場合も相續権がなかったので、ユダの後孫であるイエスは血統的に救い主になることが出来ないのです。아브라함에게는 큰아들인 이삭이 있었으나 그는 백세에 얻은 본처의 아들 '이삭'에게 장자상속을 하였습니다. 장자상속은 본처의 장자에게만 할 수 있었으므로 첩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에게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첩인 레아의 4번째 아들 유다의 경우도 이처럼 상속권이 없었으며 그러므로 유다의 후손인 예수는 혈통적으로도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人間の心の中にいらっしゃる神様は血を通じて(血 = 心) 長子に相續されて來た。ヤコブの神様は本妻の長子であるダンおじいさんに繼承された。このダンおじいさんが聖書上に現れている四番目の天使であり、四番目に神様の印を取る方です。我われの民族だけが、昔から「人が、即ち、神様である(人乃天)」という天の思想を持っていることです。 인간의 마음 속에 계신 하나님은 피를 통해(피=마음) 장자에게 상속되어 왔습니 다. 그리하여 야곱의 하나님은 본처의 장자인 단군 할아버지께로 계승되었습니다. 이 단군 할아버지가 바로 성경상에 나타나 있는 넷째 천사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인을 떼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만이 예로부터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人乃天)'라는 하늘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極東の韓半島まで来た壇支派 극동의 한반도까지 오게 된 단지파

壇支派はどのようにして極東の朝鮮半島まで來るようになったのでしょうか。これは神様が隠して來られた深い意味がある。神様はイスラエルの12支派の中に救い主が出るダン支派だけは、やがて争いが絶えなくなる中東地域から別に選んで極東地域の朝鮮半島まで來て暮らすようにされた。 단지파는 어떻게 극동의 한반도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저기에는 하나님께서 숨겨오신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구세주가 나올 단지파만을 싸움이 끊이지 않게 될 중동지역에서 따로 뽑아서 극동지역인 한반도에까지 흘러와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この世は魔鬼の世です。魔鬼が世の全權奪を取っている。だから、神様が共にする民族は、ひどい迫害を受けるということを我われは歴史を通じても知ることが出来る。 이 세상은 마귀세상입니다. 마귀가 세상 모든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은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神様が共にされたユダヤ人は2千年前、ローマの植民地で踏み付けられて異民族に迫害をされ、生き残る爲に外國人と結婚した。今、イスラエル民族は純粹なイスラエルの血統を失ってしまった。西洋人の混血兒が多い。もとのイスラエル民族は、東洋人のセム族であり、背が低くて頭髮と目が黒かった。これは聖書上にも現れている。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셨던 유대인들은 2천년 전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짓밟히고 이민족들에게 박해를 당하였으며 살아남기 위하여 외국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을 잃어버린, 서양인과의 혼혈아가 많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동양인, 쉐킵이며, 키가 작고 머리와 눈이 검었습니다. 이는 성경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パロ王の許可を得てモーセに従い "出エジプト" をすることになった60万イスラエル民族はカナン福地に入るために3支派ずつ4軍に分かれたうち、ダン支派は北方を擔當する北軍になった。そして、レバノンの北部「ゾラ」という地に陣を張ってプレスト民族と200年間戦ったが、勝負を決することが出来ず、サムソン將軍さえ死ぬと、戦う氣力を失って北東方面に移動し始めた。 바로왕의 허락을 받아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하게 된 60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북지에 들어가기로 하고 3개 지파씩 4군으로 나눈 중 단지파는 북쪽을 담당하는 북군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레비는

의 북부 '소라'라는 땅에 진을 치고 블레셋 민족과 200년간 싸웠으나 승부를 보지 못하다가 삼손장수마저 죽자 싸울 기력을 잃고 북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彼らはシリア、イラク、イランを経てアルタイ山脈を越え、モンゴルまで行った。そこで、再び100余年間暮らしながら世代が變わる間、固有の言語であるヘブライ語は殆んど忘れてしまった二世、三世はアルタイ語を使うようになった。そのうち、再び滿州を経て鴨綠河を渡って大同江の流域まで移動して來て根ざすようになったのが古朝鮮です。 그들은 시리아, 이라크, 이란을 거쳐 알타이 산맥을 넘어 몽고지방까지 갔습니 다. 거기서 다시 100여년 동안 살면서 세대가 바뀌는 동안 고유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거의 잊어버리고 2세, 3세들이 알타이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만주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 유역까지 와서 자리잡게 된 것이 바로 고조선입니다.

ヤコブの息子であるダン君おじいさんは、エジプトで亡くなって、その子孫が朝鮮半島まで來たが、彼らは先祖の名前を續けて使うことになったのです。 壇君となって、そして、國祖である壇君おじいさんは石の祭壇を築いて神様に祭祀を行なう祭祀長の職分まで兼ねて、「弘益人間」「在世理化」という建國理念を根元にしてモーセの十戒と類似した「人殺しをするな」「盜みするな」などの8條法を作って守らせた。 야곱의 아들인 단 할아버지는 애굽에서 돌아가시고, 그 후손들이 한반도까지 왔지만, 그들은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단의 이름을 계속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국조가 되신 단군할아버지는 돌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까지 겸했으며, '홍익인간' '재세이화(在世理化)'라는 건국이념 하에 모세의 십계명과 비슷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등의 8조법을 만들어 지키게 했습니다.

ホセア書14章5節には「わたしはイスラエルに對しては露のようになる。彼はゆりのように花さき」という句節がある。この、「イスラエル」はヘブライ語で「勝利者」という意味です。神様が勝利者に露のようになって降りることです。即ち、待つて、待つて、待ちわびていた勝利者・救い主が私の體を續けて韓國に現れたのです。 호세아서 14장 5절에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서 '이긴자'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긴자(승리자)에게 이슬과 같이 되어 내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기다리고 고대하던 이긴자, 구세주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제야비로소 한국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격암유록 新 해설
수정판 제 62회

천변만화(千變萬化) 무궁造化(無窮造化) 무소불능(無所不能)의 블로초 불사약 감로해인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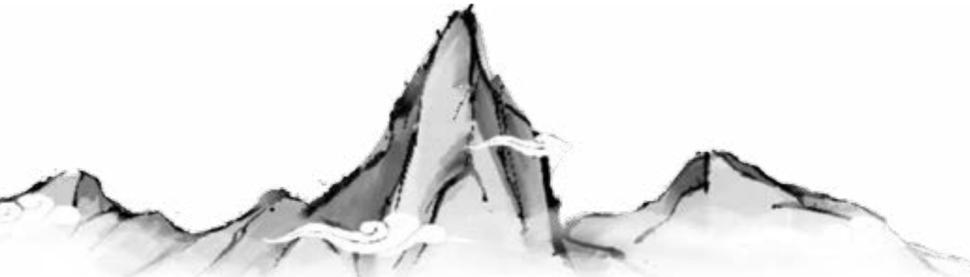
落盤四乳歌(낙반사유가)

落盤中乳弓弓乙乙(낙반중유궁궁을을)
解知下避亂處(해지하피란처)요
落盤四乳十字(낙반사유십자)이요
四乙中(사을중)이 十勝(십승)이라
米字之形背盤之理(미자지형배반지리)
四角虛處亦十字(사각허후역십자)요
米形四點落盤下(미형사점낙반하)야
世人苦待十勝(세인고대십승)이라

옛날 소반에서 네 젓꼭지가 떨어지면 궁궁을을(弓弓乙乙)이 나오는데 이 이치를 풀어서 알면 피란처(避亂處)가 나오느니라. 소반에서 네 젓꼭지가 떨어지면 십(十)자가 나오며 네 개의 을(乙)이 돌아가는 모양인 십승(十勝=白十)이 나오느니라. 쌀(米)자 모양은 밥상의 등에 그려진 십(十)자의 이치요 네 모서리가 이지러진 십(十)자의 이치요 네 모서리가 이지러진 모양 역시 십(十)자요, 미(米)자의 형상에서 네 점(点)이 소반에서 떨어진 모양이 세인(世人)이 간절히 기다리던 십승(十勝=정도령)이나라.

十勝歌(십승가)

八萬經內普惠大師(팔만경내보혜대사)
彌勒佛之十勝(미륵불지십승)이요
義相祖師三昧海印(의상조사삼매해인)
戴道令之十勝(정도령자십승)이요



海外道德保惠之師(해외도덕보혜사)
上帝再臨十勝(상제재림십승)이니
儒佛仙異言之說(유불선이언지설)
未復合理十勝(말복합리십승)이라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보혜대사(普惠大師)가 미륵불인 십승(十勝)이요. 의상조사가 삼매(三昧) 중에 본 해인을 내려주는 정도령이 십승이요. 해외도덕(기독교)의 보혜사가 상제로 재림한다는 것이 십승이니 유불선이 각기 호칭을 달리해서 부르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로 합치는 이치로 모두 똑같은 십승이나라.

海印歌(해인가)

秦皇漢武求下(진황한무구하)
不老草不死藥(불로초불사약)어더인소
虹霓七色雲霧中(홍예칠색운무중)에
甘露如雨海印(감로여우해인)이라

火雨露三豐海印(화우로삼풍해인)이니
極樂入券發行下(극락입권발행하)니
化字化字化字印(화자화자화자인)에
無所不能海印(무소불능해인)이라

진시황과 한무제가 구하던 불로초와 불사약이 어디 있소? 무지개 같은 일곱 빛깔의 구름 안개 속에 비처럼 내리는 감로해인이 불로초 불사약이라. 화우로(火雨露) 삼풍이 감로해인이니 정도령이 발행한 극락 입장권이라. 천변만화(千變萬化) 무궁造化(無窮造化)의 해인이요 무소불능(無所不能)의 해인이라.

兩白歌(양백가)

夜鬼發動寐姦世上(야귀발동잠유세상)
訪道君子誰何人(방도군자사후어인)가
河圖洛書周易理致(하도락서주역이치)
兩山之圖詳見(양산지도상견)하소

利在兩白救人生(이재양백구인생)은
瓊華心水湧泉(아유심수용천)이요
香風觸鼻心花發(향풍촉비심화발)에
衣白心白亦兩白(의백심백역양백)을
雨下三信天人(우하삼신천인)을
心花開白數列數列(심화개백부렬부렬)

야귀(夜鬼)의 발동으로 온갖 잠된 것이 판을 치는 어수선한 세상에서 도(道)를 찾는 군자(君子)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 하도낙서의 주역이치인 태백(太白)과 소백(小白)인 양산(兩山)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소. 이로움이 양백(兩白)인 십승인(十勝) 정도령에게 있으며 정도령이 인생들을 구원하느니 사람의 마음을 유리같이 맑게 해주시며 생명수 샘이 끊임없이 솟음을 치는 분이나라. 코끝에 스치는 감로해인의 은혜 향기에 마음이 꽃과 같이 피어나니 마음은 눈과 같이 희고 깨끗하며 얼굴(몸)도 빛이 나니 이 역시 양백(兩白)이라. 감로

해인이 내리는 가운데 마귀를 이기신 삼위 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눈과 같이 희게 꽃처럼 아름답게 활짝 피어나게 하는구나.

三豐歌(삼풍가)

淚水血邊播種下(누수혈변파종하)
爲義嘲笑陪養下(위의조소배양하)
祈天禱神秋收下(기천도신추수하)
火雨露印三豐(화우로인삼풍)이라
一年之農穰數(일년지농부곡)인가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승리신문은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랑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홈페이지 www.victor.or.kr	
본지는 신문요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一日三餐飢餓死(일일삼식가아사)요

十年之農生數(십년지농생곡)인가

三旬九食不飢生(삼순구식불가생)을

하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며 보낸 영생의 씨앗을 파종하고 여름에는 의(義)를 위하여 온갖 비웃음 속에서도 키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을엔 열매를 거두시니 바로 화우로(火雨露) 삼풍해인이라. 세상의 일 년 농사는 썩는 곡식을 거두는 농사인가?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어도 마지막엔 굶어 죽느니라. 십승 진리의 농사는 한 달에 아홉 번만 먹어도 배고픔을 모르고 영생하느니 영생의 곡식(화우로 삼풍해인)을 거두는 농사이니라.*

박영하 / 고서연구가 010-3912-5953
myunghpark23@naver.com